



용기의 가치

천상중 3-10 이혜윤

나는 어릴 때 항상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고 안전한 선택과 결과에만 집중했다.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롭고 낯선 도전을 한다는 것은 어린 나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 심지어 그러한 도전이 무모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용기 있게 손을 드는 것,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를 못 본 척하지 않고 먼저 말을 건네는 것, 시도하기 두렵던 일을 도전해 보는 것, 이러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건 실패에 대한 무서움과 부끄러움이 있는 나에겐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느껴졌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는 처음으로 칠판 앞으로 나가 반 친구들을 보며 발표를 하게 되었다. 조별 과제였으며 함께 PPT로 발표자료까지 만들었었다. 나는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전날 밤에 엄마에게 다가가 내 고민을 말했다.

“엄마 내가 이번에 학교에서 하는 발표를 맡고 싶은데 혹시 우리 조가 함께 열심히 만든 것을 내가 망치게 될까 봐 두려워.”라고 엄마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자, 엄마는 네가 발표를 이끌어보고 싶어 해서 조별 과제의 발표자가 되어보려고 마음먹은 용기가 대단하다고 나를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친

구들의 눈을 마주치며 편하게 발표하면 다 괜찮을 거라고 나를 격려해 주었다.

하지만 발표 당일, 나는 친구들 앞에 나가 모든 친구들의 시선을 받으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간신히 입을 떼고 발표를 시작하였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발표 진행도 매끄럽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하며 멋지게 발표하는 나를 상상하며 발표자가 되기로 결심한 내가 너무 후회스럽고 부끄러워 눈물이 났다. 엄마는 나에게 “설사 이번 도전이 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 경험으로 너도 배운 게 분명 있을 거야.”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어린 나에게 그런 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 이후 용기 내어 무언가를 도전한다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그렇게 용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 올해 나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도전을 제안받게 되었다. 그 도전은 바로 ‘MBC 케이팝 사관학교’였다. ‘MBC 케이팝 사관학교’는 매년 여름에 두 달 동안 주말마다 모여 여러 트레이닝을 거쳐 마지막 최종합숙 끝에 케이팝 아이돌을 꿈꾸는 친구들이 ‘울산서머페스티벌’이라는 큰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울산MBC의 프로젝트이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내 친구는 나에게 이 사관학교에 참가해 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이러한 큰 기회는 흔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4학년 때 내가 발표를 망쳤던 기억이 떠올라 다시 용기를 낸다는 것이 두려웠다. ‘또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결과물을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선택을 후회하면 어떡하지?’라는 걱



정들이 내 머릿속을 뒤덮었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나는 친구에게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친구가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오는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같이 준비하는 거니까 힘들면 나한테 기대.”라고 나를 토닥여주자 춤이라면 정말 누구보다 사랑했던 나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사관학교 오디션을 보러가게 되고 같이 합격하게 되었다.

큰 무대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너무 뜨거워서 지쳐버리기도 하고 너무 차가워서 냉정한 피드백을 받으면 눈물이 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내가 용기를 내어 결심하고 뛰어든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하며 두 달 간의 여정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갔다.

울산서머페스티벌 공연 당일, 나는 전날 밤부터 너무 긴장해서 잠을 못 잤던지라 계속 불안해했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 무대에 올라가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 순간 관객석 오른쪽 뒤편, 아빠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혜윤 화이팅!!”

“우리 딸 할 수 있어!”

조명이 너무 강해 아빠 얼굴은 안 보였지만 목소리만으로 아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뒤로 내 친구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어느새 긴장은 조금씩 풀려갔다. 노래가 시작되고, 두 달 동안 연습했던 춤을 추며 팀원들과 호흡을 맞추었다. 춤을 추는 동안에는 춤에 집중해서 들리지 않던 함성소리가 무대가 끝나자 터져 나오는 박수와 함성을 들으니 알 수 없는 감동과 뿌

듯함이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올해 여름에 있었던 이 무대를 계기로 용기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에 지레 겁먹고 도망 다니던 나는 처음으로 용기 내어 도전했던 나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고, 새로운 도전을 찾아다니는 내가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도 용기를 낸다는 건 나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 용기로 인해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고, 실패하더라도 값진 경험을 얻었다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처음엔 용기 없는 소심한 아이였지만,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지치고 힘들 땐 그들의 어깨에 잠시 기대며 내가 결심한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고, 용기 있는 도전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용기 내어 먼저 마이썬을 건네거나,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거나, 피겨 대회와 같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용기의 값어치’를 느낀다. ‘도전을 즐기며 나의 한계를 깨고 매일 나아지는 나’는 용기 있는 ‘나’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꿈꿔왔던, 하고 싶었지만 포기한 지 오래인 그런 도전들을 다시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니 여러분의 그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함께 달려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나는 공업축제에서 케이팝 사관학교를 같이 한 친구들과 공연을 한다. 팀원들 중 한 명이 사관학교 때 무대보다 훨씬 크고 관객석도 많다고 말하며 ‘실수하진 않을까’ 걱정하던데, 내가 받았던 따뜻한 응원처럼 나도 그 친구를 따스하게 격려해 주고 용기

를 북돋아 주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용기 내어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응원한다.

